

[종합]

광주 지하철 1호선 2구간 개통식 못하면 운행 못하나

시민들 “예정대로 개통하라” 반발

광주시 ‘선 운행, 후 개통식’ 등 대안 찾기 고심

광주시가 선거법 저촉시비때문에 지하철 개통식과 지하철 운영을 선거 뒤로 미루려하자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있다.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오는 4월 9일 이후로 연기하려 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요식행위’나 다른 없는 개통식을 이유로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운영을 연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본보 14일자 1면기사 참조〉 시는 현재 건교부 및 선관위와 개통일정 조율에 들어갔지만, 시민들은 열세를 들어 건설한 지하철 운영을 ‘정치권의 생색내기 행사’때문에 연기해서는 안된다며 예정대로 개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8대 총선에서 광산에 출마예정인 심재민 광주시 전 행정부시장은 14일 광주시청을 방문, “광산주민은 지하철 공사도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지하철 개통만을 기다려왔다”며 “선거로 인해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지하철은 예정대로 개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애초 3월 27일께를 지하철 1호선 2구간 개통식 날짜로 잡았으나 ‘총선 60일 전부터 총선 당일까지 단체장이 주관하는 행사를 여는 것은

다.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시는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지하철 개통식, 운행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가 검토하고 있는 안은 ▲개통식·지하철운영 총선 이후 연기 ▲선 운행, 후 개통식 ▲선거법 저촉사유를 없애고 원안대로 개통식을 갖는 방안 등이다.

또 박광대 시장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 지하철 건설에 관련된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는 개통식에 앞서 지하철을 운행하는 것은 그동안의 관례를 벗어나는 데다 지하철 운행 행사를 치를 경우 행사자체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뻔한 묘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의 요구에 따라 개통식 전에 지하철을 운행할 수도 있지만, 일반도로의 개통과 달리 지하철은 승객의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무원칙하게 지하철을 운행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는 지하철건설본부가 아니라 공기업인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행사를 주최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없어 이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위길환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주민들의 편의 등 모든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지하철 개통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영산호 수질개선패야 J프로젝트 성공”

주민 공청회…“바다연결 순환형 레저도시 개발”

동북아의 미래 관광허브를 지향하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J 프로젝트)의 성공은 영산호의 수질개선과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등에 달려 있다고 지적됐다.

“영암호와 금호호에 물을 공급하는 영산호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번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한다”며 “순설 등을 통한 영산호의 수질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호수와 바다를 연결하는 순환형 레저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되는 기능이 많고 따로 노는 경향이 있다”며 “5개 지구를 하나로 묶는 순환교통망 확충, 새만금과 차별화되는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역민과 종사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저밀도형 주택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혜정(중앙도시계획위원회)평택대 교수는 “5개 지구단위로 계획하다 보니 골프장 등 지구별로 중

김행복 주민대책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수긍하는 보상이 되어야 한다”며 “우선, 개발행위제한구역(400만평)을 빨리 풀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전남 관광상품 한자리에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주관한 전남도 관광기념품 판매장 개장식이 14일 영암 호텔현대에서 열린 가운데 개장식 참가자들이 남도의 멋과 맛이 담긴 기념·특산품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무궁화 위성 6호 KT, 2010년 발사

KT가 오는 2010년 6월 무궁화위성 6호를 발사한다. 무궁화위성 6호는 2011년 12월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무궁화위성 3호를 대체해 위성통신·방송 서비스와 중계기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무궁화위성 3호는 전적으로 214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스

카라이프에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는 14일 “무궁화위성 3호를 대체하는 무궁화위성 6호 발사로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서비스 안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KT는 1999년에 발사한 무궁화위성 3호와 2006년 발사한 무궁화위성 5호 등 총 2기를 통해 위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산 한약재 ‘황금’ 공기청정기 필터 사용

전남도-웅진코웨이 협약

전남도가 웅진코웨이와 손잡고 공기청정기 필터에 사용되는 한약재 ‘황금(黃芩)’의 사업화에 나섰다.

도는 14일 공기청정기 제조업체인 ‘웅진코웨이’와 상호교류·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남의 천연자원을 이용한 한방산업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웅진코웨이는 전남에서 생산되는 황금 전량을 제품으로 구매·사용한다. 도는 이 한약재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게 된다.

웅진코웨이가 이런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전남산 황금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아, 자사의 신제품인 공기청정기의 필터에 황금재료를 하기 위해서다.

웅진코웨이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최희영 교수팀과 공동연구해 한약재의 천연 황금을 필터에 적용해 공기 중의 세균 99.9%를 없앨 수 있고, 염증 유발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어 신제품을 개발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빛의만평' (Light's Review) by Kim Jung-do. It features a cartoon illustration of a man sitting at a desk with a computer, looking thoughtful. The tex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light in daily life and the environment.

전남 남악 신도시 태양광 발전 붐

임대주택 등 1,825가구 설치

전남도가 도청 소재지인 무안 남악 신도시를 태양열도시(Sun-City)로 추진하면서 태양광발전 붐이 일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악신도시 Sun-City 조성사업이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와 국제기후변화협약 등 환경 변화에 힘입어 탄력을 받고 있다.

지원하는 공동주택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지난해 옥암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550가구를 시작으로 현대 아이파크 580가구, 국민임대주택 1천825가구 등에 실시됐다.

지난해 3월 120kW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 대우푸르지오는 지금까지 누적 발전량 11만7천230kWh로 지난 1년간 주민들에게 1천100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했고,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의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 지방도 정비사업 조기 발주

여수 화양~나진 등 2,335억 규모 내달 말까지

전남도가 올해 추진할 2천300여억 규모의 지방도 정비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까지 조기에 발주키로 했다.

전335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들 사업은 계속공사가 28개 지구로 가장 많고 신규 공사발주 7개 지구, 설계용역 16개 지구 등이다.

올해 신규 설계지구 가운데 벌교-낙안 6km와 화순 원화-효산 4km 등의 도로는 순천 낙안 민속음식축제장과 도곡온천 등을 찾는 관광객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주요 관광지 및 산업단지 교통체증 해소, 해안도로 개설,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추진되는 지방도 정비사업은 모두 51개 지구 2

도로 등급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목표-안해 계속사업 7개 지구와 여수 화양-나진 등 신규사업 4개 지구에 1천17억원,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4개 공구에 602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특히 올 5월 개통 예정인 무안-광주 고속도로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나주 노안 IC-동신대 6.5km를 기존의 2차로에서 4차로로 확대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김주정기자 jjnews@

“송례문 사전답사 등 범행 치밀했다”

방화범 채씨 구속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4일 국보 1호인 송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채모(70)씨를 구속했다.

방화범 채씨 구속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4일 국보 1호인 송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채모(70)씨를 구속했다.

채씨는 이날 실질심사에 앞서 “영장실질심사는 필요가 없다. 내가 불을 지른 것은 잘못이다. 혐의는 다 인정한다”라며 송례문 방화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채씨는 2007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송례문을 탈취한 뒤 접시사다리와 시너를 담은 1.5ℓ 짜리 페트병 3개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광주일보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Contact information for advertising inquiries, including phone numbers and fax.

분할 합병 공고 (제천자이의 재출판공고). Notice regarding the merger of Jeoncheon Ja-i Publishing Co., Ltd. and its subsidiaries.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공고. Notice regarding the transfer of electrical engineering businesses.

자본감소공고. Notice regarding capital reduction for a company.

합병공고 및 권취제출공고. Notice regarding a merger and the submission of shares for acquisition.

공시최고 (Public Notice) table listing various real estate transactions, including addresses, prices, and agents.

산행안내 (Hiking Guide) for February 16th to 24th. Lists various hiking routes, distan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organizers.